

# 행위자의 귀환과 安瑞羽의 〈楡院十二曲〉

The Return of Agency in An Seou's "Yuwon Sibigok"

신성환\*\*

**국문요약** 본고는 '행위자의 귀환'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안서우(安瑞羽)의 연시조 〈유원십이곡(楡院十二曲)〉에 내재된 주체적 능동성과 내적 갈등의 양상을 고찰하였다. 먼저 원전비평을 통해 〈유원십이곡〉이 기존의 13수 설을 벗어나 12수의 유기적 연작임을 확인하였다. 안서우의 환로를 재검토한 결과, 그는 대사회적 '불우'나 '낙척'에 함몰된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남인으로서의 정치적 한계와 가족적 책임이라는 조건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선택하는 능동적 행위자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시어의 반복과 변주를 면밀히 추적함으로써, 강호와 속세 사이의 긴장이 작품 전반에 걸쳐 유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도연명을 활용한 〈제8장〉과 〈제9장〉은 강호의 선택이 완결된 결단이 아니라 여전한 미련과 자기 설득의 과정임을 보여주며, 〈제10장〉과 〈제11장〉은 출사의 이유를 '위친이굴(爲親而屈)'로 전유하며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자의 면모를 드러낸다. 마지막 〈제12장〉은 이러한 내적 분열이 '말할 수 없는 상태'로 압축된 고통의 형상화이자 갈등의 최종적 집약이다. 결과적으로 〈유원십이곡〉은 갈등의 해소가 아닌, 해소되지 않는 갈등 자체를 시적 언어 속에 붙들어 놓음으로써 사대부 관료 문인의 내면을 인간적이고 입체적으로 형상화한 독자적인 성취를 보여준다.

**핵심어** 안서우, 〈유원십이곡〉, 연시조, 강호, 속세, 행위자, 원전비평

- 차례**
- 문제의 소재
  - 안서우의 환로(宦路)와 〈유원십이곡〉의 위치
  - 행위자의 귀환과 〈유원십이곡〉의 의미
  - 결론

스트의 誤選으로 이루어진 문학연구는 자칫하면 시간의 낭비일 뿐더러 학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향 감각을 상실케 하여 마침내 자신이 함정에 빠질 뿐만 아니라, 인접 과학인 역사학·사회학·철학 등의 결론까지도 좀 瓦解로 이끌어가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것<sup>1</sup>이라는 다소 과격해보이는 표현으로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 제대로 된 텍스트의 확정 없이는 소위 '본격적인' 문학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 1. 문제의 소재

문학을 연구함에 있어 원전비평(原典批評)을 통해 올바른 '텍스트'를 확립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자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원전비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텍

이러한 당위적 언사로 서두를 때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하는 작품 양기재(兩棄齋) 안서우(安瑞羽, 1664~1735)의 〈유원십이곡(楡院十二曲)〉이 바로 이 '원전(비평)'의 부재(不在)로 인한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원십이곡〉이 수록된 안서우의 문집 『양기재산고(兩棄齋山稿)』

\* 이 논문은 2024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이다.

\*\*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1 정규복, 「原典批評의理論과實際」, 『도남학보』 8, 도남학회, 1985, 13쪽.

齋散藁』는 그간 유실(遺失)된 것으로 알려졌고, 그에 따라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원전이 아닌 2차 자료에 의존해야만 했다. 특히 『양기재산고』를 직접 보고 작성한 것이 확실한 <유원십이곡>에 대한 최초의 해제<sup>2</sup>마저 근년에 들어 서야 확인<sup>3</sup>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제출된 다수의 논의에서는 원전의 부재로부터 기인한 쟁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아래에서는 그 쟁점들을 정리함으로써 본고의 논의를 예각화하고자 한다.

<유원십이곡>을 둘러싼 쟁점은 구성의 문제, 창작 장소 및 시기의 문제, 구조적 유기성의 문제, 그리고 화자를 중심으로 한 해석의 문제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구성과 관련해서는 ‘연시조’ 형태인 <유원십이곡>이 13수<sup>4</sup>로 구성되었다는 견해와 12수<sup>5</sup>로 구성되었다는 견해가 부딪혔다. 전자의 경우 심재완이 『양기재산고』를 해제하면서, “전라도 무주에서, 山水勝景을 사랑하여 隱居하며 山林學派의 思想을 읊은 時調作品 19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유원십이곡 13수와 併錄된 6수<sup>6</sup>라고 언급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이후 김용찬은 정형용의 해제<sup>7</sup>를 토

대로 ‘12수’로 구성된 연시조임을 주장했다.

구성 문제는 『양기재산고』 원전이 발굴·소개<sup>8</sup>됨에 따라 타개가 가능해졌다. 원전을 확인해보면 13수로 보는 입장에서 <서장(序章)>으로 이해되었던 『양기재산고』의 1번 작품<sup>9</sup>(이하 <양기 1>)은 <유원십이곡>의 <제1장>과는 다른 페이지에 단독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양기 1> 옆에 충분한 여백이 있음에도 <제1장>을 나란히 기록하지 않았다. 또한 <유원십이곡>에 해당하는 작품들에는 ‘右第0章’이라는 부기(附記)가 있는데, <양기 1>에는 별다른 부기가 없다. 이러한 수록 형태로 보건대, 그간 <서장>으로 이해되기도 했던 <양기 1>은 <유원십이곡>과는 별개의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유원십이곡>은 제목에 나타나듯 12수의 연시조로 보아야 한다.

창작 시기 및 장소와 관련해서도 정혜원<sup>10</sup>에 의해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을 토대로 ‘유원’이 전라도 무주가 아닌 충청도 제천현 동쪽 15리에 위치한 지역이며, <유원십이곡> 또한 무주 칩거시의 작품이 아니라 제천부근 유원에 은거하던 시절의 노래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김용찬<sup>11</sup>은 손자인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의 연보[順庵先生年譜]와 묘갈명<sup>12</sup> 등을 통해 안서우의 생애를 보다 면밀하게 재구했다. 그 결과 <유원십이곡>의 ‘유원’은 무주가 아닌 제천의 지명이며 창작 시점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관직에서 잠시 물러나 유원에 머물던 1712년경임을 밝혔다.

다음으로 구조적 유기성의 문제를 살펴보자. 이는 앞

그쳤다. 茂朱山水의 勝을 사랑하여 囊岳의 아래에 卜居하고 京路를 밟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유원십이곡>은 現在 世上에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그 앞뒤에 있는 일곱 首도 아울러 여기에 실어서 이 方面의 研究에 이바지하려 한다.”

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김현영·정인숙, 「안서우의 『양기재산고』」, 『한국한문학회연구』 78, 한국한문학회, 2020.

9 내 마음 저버보아 님의 마음 싱각하니 / 나 슬흐면 님 슬코 님 도흐면 나 도흐니 / 모로미 己所不欲을 勿施於人 ㅎ리다.

10 정혜원, 앞의 논문, 1995, 74쪽.

11 김용찬b, 앞의 논문, 2016.

12 이익, 「蔚山府使安公墓碣銘 并序」, 『성호전집』 61(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서).

2 정형용, 「유원십이곡」, 『어문』 3, 우리어문학회, 1950.

3 김용찬a, 「안서우 <유원십이곡>의 구조와 작품 세계」, 『한국시가연구』 41, 한국시가학회, 2016.

4 정혜원, 「18세기 강호시조 연구: 연시조 작품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4, 상명대 인문과학연구소, 1995; 윤정화, 「18세기 향촌사대부의 ‘육가’ 수용의 양상과 의미」, 『문창어문논집』 38, 문창어문학회, 2001; 김상진, 「안서우의 <유원십이곡> 재조명: 강호인식과 연작성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19, 온지학회, 2008.

5 정형용, 앞의 글, 1950; 김용찬b, 「안서우의 생애와 시조 창작 배경」, 『한국시가문화연구』 37, 한국시가문화학회, 2016; 김용찬, 앞의 글, 2016.

6 심재완, 『시조의 문헌적 연구』, 세종문화사, 1972, 135쪽. 논자는 이 글에서 국립도서관에서 소장했던 『양기재산고』 원전이 분실되어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7 해제의 전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榆院十二曲은 『兩棄齋散藁』의 처음에 있는 시조다. 또 同書에는 <朱溪十二曲>이 부록으로 실렸다고 추측하나 제목을 세운 것이 보이지 않아서 확인하지 않다. 그러나 동서에는 <유원십이곡>의 앞에 한 수, 뒤에 여섯 수가 씌어 있다. 兩棄齋는 兩棄翁과 동일한 사람으로 廣州人 安瑞羽의 雅號다. 그는 자를 鳳舉라고 하며 유명한 역사가 順庵 安鼎福의 조부요, 『양기재산고』는 표제를 ‘유원십이곡’이라고 한 것으로 해방 전에 국립도서관에서 순암의 저서(사본)를 구입할 때에 끼어서 넘어온 사본이라 귀중도서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안서우는 숙종 신미 17년(西1691)生으로 그는 일찌기 聖廟從祀의 사건에 참여하여 삼십여년간 落拓하였고, 官은 蔚山府使에

선 쟁점과 맞물린 문제이기도 한데, 12수 또는 13수로 구성된 <유원십이곡>이 구조적으로 여타의 연시조가 갖고 있는 수준의 유기성을 담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12수임을 주장한 김용찬의 경우 <도산십이곡>과 같이 전6수, 후6수로 나눌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 유기성 갖추고 있는 작품으로 보았다. 이와 달리 13수로 파악한 정혜원은 각 수 간의 상호 긴밀성이 약하며 “출처갈등이 후반에 서술되는 등 일관성이 결여”<sup>13</sup>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김상진은 “유기적 결합체인 육가계 연시조에는 미흡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연작성을 지니면서 연시조로서의 기능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sup>14</sup>고 보았다.<sup>15</sup> 유기성과 관련된 문제 또한 원전비평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 내용상 이질적이어서 유기성 결여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양기 1>을 <유원십이곡>과 분리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원십이곡>이 12수로 된 六歌系 형식의 작품으로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짜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첨예한 지점인 해석의 문제이다. 강호자연으로 위장된 현실적 불만을 토로한 작품<sup>16</sup>이라거나 위장된 강호의 즐거움이 나타나며 중국에는 “극한 불만으로 작품을 끝맺는”<sup>17</sup>다는 등 화자가 강호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한 논의가 있는 반면, 정반대로 歸自然의 의기가 표현되어 있으며 “자연에 은거한 화자의 자족적인 삶의 면모가 잘 드러나고 있다”<sup>18</sup>고 보기도 하

였다.

그런데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은 ‘만족’과 ‘불만족’이라는 두 극점으로 해석의 방향이 나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방향이 무엇이든 (오류이기는 하지만) 안서우가 향촌사족이어서 ‘불우(不遇)’했다거나 정치적 이유로 벼슬에서 밀려나 ‘낙척(落拓)’한 상황이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작자의 대사회적 활동으로부터 빚어진 ‘불우’와 ‘낙척’에서 찾고 있는 썸이다. 이는 사대부들의 강호시가를 이해할 때 흔히 적용되는 독법이라는 점에서 일견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의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 바로 그 불우와 낙척이라는 조건을 안서우 개인의 이력에 대한 세밀한 고증 없이 ‘강호시조’이기에 선형적으로 적용한 협의는 없는지? 묘갈명에 등장하는 ‘落拓’이 제 3자인 이익(李翼, 1681~1763) 개인의 사후적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안서우 스스로가 낙척하다고 여겼던 것인지? 필자 또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당장 명쾌한 답을 제시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의문들에 대한 해답에 조금이나마 다가가기 위한 긴요한 방편으로 ‘행위자의 귀환’<sup>19</sup>에 주목하고자 한다. 행위자에 주목하자는 것은 우리의 연구가 근년까지 시간축 위주의 거시적·계열적 관심사에 치중하면서 행위자들의 개별적 입지, 동기, 선택, 의미구축의 차원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전제하는 것으로,<sup>20</sup> ‘강호시조’, ‘정치현실’, ‘18세기’와 같은 키워드에 의해 직조된 커다란 구조에서 벗어나 개별 행위자의 ‘능동성’이 갖는 의미를 재평가해보자는 것이다. 존재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탓으로 보이긴 하지만, 안서우와 <유원십이곡>에 대한 그간의 논의에서 엄존(嚴存)하는 『양기재유고(兩棄齋遺稿) 하(下)』와 『양기재속집(兩棄齋續集)』을 전혀 인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 자체만으로도 행위자에 주목해야 할 반성적

13 정혜원, 앞의 논문, 1995, 76쪽.

14 김상진, 앞의 논문, 2008, 31쪽.

15 한편 양희철(『유원십이곡’의 텍스트 연구, 『청대학술논집』 28,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 2017)은 <유원십이곡>이 하나의 연시조가 아니라 <유원농포가> 5수와 <유원일흥가> 6수가 합쳐진 작품이며, 題名에 등장하는 ‘십이곡’에 대해서는 안서우가 유원에서 창작한 12수—두 연시조와 『양기재산고』의 1번 작품을 포함한 12수—의 시조를 통칭하는 것으로 추론하기도 하였다. 논자는 이 과정에서 <유원십이곡>의 마지막 작품을 <유원십이곡>과는 관련이 없는 단시조로 파악했다. 그러나 원전을 확인해보면 마지막 작품에 대해서도 ‘右第十二章’이라는 부기가 있어 <유원십이곡>의 한 편임을 알 수 있다.

16 윤정화, 앞의 논문, 2001, 121쪽.

17 김상진, 앞의 논문, 2008, 26쪽.

18 김용찬, 앞의 논문, 2016, 162쪽.

19 이에 대해서는 김홍규, 『근대의 특권화를 넘어서』, 창비, 2013, 235~240쪽.

20 위의 책, 235쪽.

지점을 던져준다고 하겠다.

## 2. 안서우의 환로(宦路)와 <유원십이곡>의 위치

『양기재산고』에 수록된 19수의 창작 정황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의 관심사인 <유원십이곡>의 경우 앞서도 언급했듯, 작자가 가족들을 이끌고 유원에 머물렀던 1712년부터 1715년 사이의 어느 무렵에 창작되었음이 밝혀졌다. 그런데 안서우가 유원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 묘갈명 등 관련 기록을 통해 이이와 성혼의 문묘 배향과 관련된 논쟁인 성묘종사사건에 연루된 관계로 높은 벼슬을 할 수 없었고, 유원으로의 이주 또한 ‘모종의 정치적 사건’과 연루되어 있을 것으로 추론<sup>21</sup>했을 뿐이다. 안서우가 갑술환국 이후 정계의 주도권을 빼앗긴 남인의 일원임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추론이라 할 수 있으나, 그가 본격적인 관직 생활을 시작한 1694년과 유원으로 이주한 1712년 사이의 시간적 간극이 커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익의 묘갈명에 따르면 안서우는 1691년에 성균관 생원이 되었고, 4년째 되는 1694년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다. 급제는 했으나 성묘(聖廟)에 종사(從祀)하는 논의에 참여하였다는 명목으로 괴원(槐院)에 선출되지 못했고, 이로부터 낙척하였다.[自是落拓] 홍문관이거나 사간원, 사헌부 등 청요직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관직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품계도 꾸준히 올랐다. 숙종 22년 창악찰방(昌樂察訪)<sup>22</sup>으로 출발한 안서우는, 3년 뒤에는 동학교수(東學教授)<sup>23</sup>를 지냈고 이후 정6품인 전적(典籍)<sup>24</sup>과 예조좌랑

(禮曹佐郎)<sup>25</sup>을 거쳐 유원으로 이주하기 바로 전 해인 1711년(숙종 37년)에는 정5품인 예조정랑(禮曹正郎)<sup>26</sup>이 되었다. 출사한 이래 18년 동안 쉬지 않고 관직생활을 했고 어느덧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생각했던 것만큼의 지위에는 오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六歲初學書	여섯 살에 처음으로 글을 배우고
十世能綴文	열 살에 글을 지을 줄 알 것이다
十四始赴舉	열 넷에 처음 과거 시험에 나아가고
二十搏鵬雲	스물에 鵬雲에 오르기
發解與南省	鄉試에 합격하여 생원 진사시를 치르고
擢隆爲首冠	문과에 장원 급제해 발탁될 것이로다
廿三班鵷行	스물 셋에 조정 반열에 참여하여
劍珮登霄漢	검과 패옥 차고서 대궐에 오를 것이요
廿五作納言	스물다섯에 納言이 되고
出入爲喉舌	조정을 드나들며 승지가 되겠지
三十參亞卿	서른에 亞卿이 되고
四十參公秩	마흔에 公秩이 되리라
五十佐明主	오십에 밝은 군주 보좌하고
六十樹功烈	육십에 功烈을 세울 것이네
七十乃致仕	칠십에 벼슬에서 물러나니
獻策啟蓬華	그간의 헌책한 것들 蓬華로 돌아가리라 <sup>27</sup>

(후략)

25 『승정원일기』 숙종 33년 9월 28일.

26 안서우는 숙종 34년 예조정랑에 제수(『승정원일기』 숙종 34년 5월 2일)된 뒤 그보다 품계가 낮은 비인현감과 사맹, 전적 등을 제수 받았다가 숙종 37년 다시 예조정랑에 제수(『승정원일기』 숙종 37년 6월 16일)되었다.

27 안서우, 『自期吟』, 『양기재유고(하)』. 이어지는 작품의 뒷부분에서는 한가로움 삶을 누리는 장면이 등장한다. 여기서의 한가로움은 출처의 고민 끝에 강호를 선택하고 그 속에서 누리는 한가로움이라기보다는, 공명을 성취라는 과업을 달성한 이후에 느끼는 관료문인으로서의 한가로움으로 이해된다. “淵魚與天鳶 연못의 물고기와 하늘의 솔개 / 飛躍上下察 뛰놀고 날아다님에 상하로 이치가 밝게 드러나네 / 庭草與杏壇 庭草와 杏壇 / 杏紅翠相交 붉고 푸른 색이 뺨뺨하구나 / 密霽月清若 맑게 갠 달은 마치 투명한 듯 밝고 / 無光風動高 온화한 바람은 높이 흥취 일으키도다 / 窓風穩年又年 바람 창가에서 한 해 한 해 보내니 / 半醉復半醒 반쯤 취하였다가 또 반쯤 깨노라.”

21 김용찬a, 앞의 논문, 137~145쪽 참조.

22 『승정원일기』 숙종 22년 6월 22일.

23 『승정원일기』 숙종 25년 1월 8일.

24 “德潤, 前佐郎陸林最, 前察訪陸天祥, 前別檢安玖, 前典籍安瑞羽”(『승정원일기』 숙종 31년 11월 2일).

마치 거업(學業)을 통한 입신양명의 마스터플랜을 적어 놓은 듯한 이 작품의 제목은 「자기음(自期吟)」, 즉 ‘스스로 다짐하는 노래’이다. 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致仕할 때까지 단계별로 성취해야 할 과업을 나열하고 스스로 다짐함으로써 현달(顯達)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다. 선초의 사대부들에게서 보이는 학문 수양을 통한 독선기신(獨善其身)과 같은 자세는 애초부터 보이지 않는다. 글을 배우는 목적은 과거를 치르기 위함이고, 급제한 후에도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며 최고의 지위에 오르길 꿈꾼다. 그러나 주지하듯 원대한 포부를 품고 계획을 세우고 굳게 다짐해본들 모두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성취는 극히 일부만이 도달할 수 있으며, 안서우도 그 ‘극히 일부’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일대 변곡점이 될 사건이 터진다. 바로 아버지 안건행(安健行, 1625~1711)이 유명을 달리한 것이다.

예조에서 계를 올려 아뢰기를 “연잉군 출합시에 가례청도청 안서우가 부친상을 당하였으므로, 대신하여 본조의 정랑 이만근을 差下하여, 원래의 단자 안에 고쳐서 부표하여 들이니,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sup>28</sup>

안서우는 예조좌랑을 제수받은 그 해 겨울에 부친상을 당하면서 관직에서 물러났고, 이듬해에는 손자의 출산을 앞두고 서울 청파리에서 제천 유원에 있는 친척 윤훈갑의 집으로 이사를 갔다.<sup>29</sup> 어떠한 연유로 서울에서 제천까지 그것도 친척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아버지를 여의고 손자가 태어나는 등 가족 구성원의 변화를 겪었던 그 기간에 그간의 삶을 돌아볼 시간을 가졌고, 강호에서의 한가로운 삶과 현실 정치에 참여함

으로써 주어질 공명이라는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치열하게 갈등하고 고민했을 것이다. 그리고 〈유원십이곡〉은 바로 그 갈등과 고민의 소산이다. 제천 기거(起居)시 안서우가 “다시 현실 정치로 복귀하기가 쉽지 않다”<sup>30</sup>고 여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복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민의 시간이 필요했다.

인간은 (어떠한 대상에 나름의 의미가 부여되었을 때는) 경제적이나 단순한 쾌락의 원칙에 맞추어 계산될 수 있는 류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존재이다. 또한 다양한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대상과 자신의 삶에 부여할 수 있으며, 그 부여된 의미를 경유해서만이 자신의 열망을 실현하는 ‘의미적 존재’이다.<sup>31</sup> 안서우는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다짐한 바를 이루지 못할 것을 알았음에도 다시금 정치 현실을 택했다. 이는 환로의 의미를 나름대로 전유(專有, appropriate)한 결과이다. 작품 안에서는 강호를 지향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속세를 선택한 것이다.

제천으로 이주한 3년 뒤인 1715년(숙종 41년) 안서우는 종5품격인 직강(直講)에 제수<sup>32</sup>받아 복직했고, 이듬해에 품계를 올려 정4품 사예(司藝)<sup>33</sup>에 오른다. 이후로도 정치적 다툼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유배를 갔다거나 면직이나 파직을 당했다는 등의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 비록 당상관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태안군수, 상례(相禮), 판교(判校) 등 종3품에 해당하는 실직(實職)을 꾸준히 맡았다. 안서우는 1725년부터 이듬해 9월~12월 사이 어느 무렵까지 울산부사직을 수행한 끝으로 무주에 칩거하여 더 이상 벼슬길에 나오지 않았다.<sup>34</sup>

30 김용찬a, 앞의 논문, 145쪽.

31 김영민, 「철학의 역사와 의미의 역사: 성리학자와 연암 박지원」, 『한국학논집』 43,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1, 149~153쪽.

32 『승정원일기』 숙종 41년 10월 3일.

33 『승정원일기』 숙종 42년 8월 6일.

34 한편 안서우는 울산부시 시절 전정(田政)을 사사로이 구처(區處)하였다는 죄목으로 탄핵을 당했다. “전 울산 부사 안서우는 작년에 전정을 마감하게 될 때에 재해 입은 3천여 결(結)을 도모하여 연서 사사로이 스스로 구처하여 80여 결로 했습니다. 만일 이를 통렬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탐오(貪汚)한 관원들이 더욱 꺼리는 바가 없을 것이니, 안서우를

28 “禮曹啓曰, 延祔君出閔時, 嘉禮廳都廳安瑞羽父在喪, 代以本曹正郎李萬根差下, 原單子中, 改付標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승정원일기』 숙종 37년 12월 27일).

29 안정복, 「順庵先生年譜」, 『순암집』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서 https://db.itkc.or.kr/).

小時有小期 젊었을 적에 기약한 바 있었으니  
有期期必成 기약함에 있어 반드시 이루기를 다짐했  
었지

(중략)

朝暮自期之 아침저녁으로 스스로 기약하였건만  
營營期不知 어지러이 번다하기만 할 뿐 기약한 바대  
로 되지 않았네.

不知榮與辱 영화와 욕됨을 알지 못하였으니  
有命不可期 命이 있는 것을 기약할 수 없었도다.  
死生皆有命 삶과 죽음엔 모두 命이 있고  
通塞非期知 나아가고 막힘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  
라오.

人生貴自然 인생은 절로 그러함을 귀하게 여기니  
始覺前期非 비로소 이전의 기약이 잘못되었음을 깨  
닫노라.

功名須待命功名은 모름지기 명을 기다려야 하나니  
何必預期爲 어찌 굳이 미리 기약을 한단 말인가  
所期期於此 기약한 바를 여기에서 다짐하노니  
命豈長如斯 명은 어찌 이와 같이 길단 말인가<sup>35</sup>

「회전자기음(悔前自期吟)」은 「자기음」과 짝을 이루는 작품으로, 전에 스스로 다짐했던 것을 후회하는 노래이다. 젊은 시절 현달하려는 꿈을 품고 아침저녁으로 다짐하며 부단히 노력했지만 공명은 인간의 힘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지난날의 다짐을 후회하고 읊었다. 「자기음」과 「회전자기음」은 관직에 나아가기 전과 관직

우선 잡아가두고, 본도(本道)로 하여금 사실대로 사핵(査覈)해서 계문(啓聞)하도록 하여 울대로 죄를 과하기 바랍니다.”(『조선왕조실록』 영조 2년 12월 14일) 이 탄핵은 안서우가 울산부사를 그만 둔 이후에 제기되었는데, 실질적 비리를 밝히는 차원이었는지 정략적 차원이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 김용찬a(앞의 논문, 2016, 147쪽)는 남인이었던 안서우를 견제하기 위한 서인(노론) 측의 정략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을 입증할만한 전후의 사정이나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35 안서우, 「悔前自期吟」, 『양기재유고(하)」.

에서 물러난 이후를 노래함으로써 안서우는 30여 년 간의 관직생활을 스스로 돌아본 것이라 하겠다.<sup>36</sup> 요컨대 〈유원십이곡〉은 「자기음」과 「회전자기음」 사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sup>37</sup>

정리하자면, 안서우는 비록 당상관의 지위에 오르지 못했지만 큰 부침 없이 비교적 평탄한 관직생활을 보냈다. 명문가의 후손으로 판서를 지낸 이익의 눈에는 낙척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기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안서우의 환로는 세속의 정치 현실과 연을 끊어야 할 정도의 울분과 불만을 내장(內藏)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신 유원에 칩거하던 시절의 안서우에게는 꽤 오랜 기간 관직에 몸담았음에도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한 데에서 촉발된 개인적 차원의 갈등<sup>38</sup>이 극에 달했으며, 〈유원십이곡〉은 그가 겪었던 내적 갈등의 산물이다.

### 3. 행위자의 귀환과 〈유원십이곡〉의 의미

“개별 행위자는 한 상황에 의해 조건화될 뿐 아니라 동시에 그 상황의 생산에도 참여하기 때문”<sup>39</sup>에, 개별 행위자를 엮어내는 구조적 상황과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과 제약으로부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개인의 능동성(agency)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즉 구조와 행위자의 능동성 사이의 상호작용과 긴장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 〈유원십이곡〉은 출처 사이의 치열한 갈등과 고민이 담긴 작품이다. 우리가 〈유원십이곡〉을 제

36 「회전자기음」의 의미에 대해서는 당대 남인이 처한 현실과 관련하여 논의되기도 하였다(박기완, 『양기재 안서우 문학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23~24쪽).

37 한편 〈유원십이곡〉 뒤에 합철되어 있는 〈朱溪十二曲〉으로 추정되는 6수의 시조는 「회전자기음」 너머에 위치한다.

38 물론 외부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남인’이라는 안서우의 처지를 고려할 필요는 있다.

39 알랭 투렌, 조형 역, 『탈산업사회의 사회이론: 행위자의 복귀』, 이화여대 출판부, 1994; 김흥규, 앞의 책, 236쪽에서 재인용.

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8세기’, ‘남인’, ‘관료’, ‘사대부’ 등 자신을 엮어매는 상황적 조건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위자 안서우의 능동적 선택의 과정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아래에서는 작품을 통해 이러한 면면을 포착해보고자 한다.

연시조에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연’시조라는 특징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구조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유원십이곡〉의 경우에도 대다수의 연구에서 구조에 관심을 기울였다. 앞서 언급했듯 12수로 파악한 논의의 경우 전6수와 후6수로 파악했다.<sup>40</sup> 13수로 이해한 논의들은 서장, 1~8장, 9~11장, 12장 등 4단락의 구조<sup>41</sup>로 보거나, 제 I 단락(서장), 제 II 단락(제1장, 제2장~제7장, 제8장), 제 III 단락(제9장~제11장, 제12장) 등 3단락의 구조<sup>42</sup>로 보았다. 어떻게 구분을 하였든 간에 각 수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분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러한 방식은 연시조의 구조를 이해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유원십이곡〉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시어’를 중심으로 내적 짜임을 탐색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로도출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거칠게 말하자면, 〈유원십이곡〉은 전체 12수 중 제1장과 제12장을 제외한 제2장부터 제11장까지의 10장을 각각 순차적으로 2편씩 묶을 수 있다. 형태와 의미의 측면에서 동일한 시어가 두 수에 반복해서 등장하며, 이렇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시어가 개별 작품을 이해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제12장〉을 제외한 각각의 그룹[1, 2-3, 4-5, 6-7, 8-9, 10-11]에서 속세를 지칭하는 시어가 등장함으로써 강호와 속세 사이의 긴장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이러한 점

을 염두에 두고 〈유원십이곡〉을 들여다보자.<sup>43</sup>

文章을 ㅎ자 ㅎ니 人生識字憂患始요

孔孟을 비호려 ㅎ니 道若登天不可及이로다

이 내 몸 쓸 디 업스니 聖代農圃 되오리라 (제1장)

〈제1장〉은 〈유원십이곡〉 전체의 서장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가치관을 명징하게 드러냈다. ‘문장’과 ‘공맹’으로 상징되는 속세에서의 삶과 강호에서의 ‘聖代農圃’의 삶을 대비시킴으로써 앞으로의 흐름을 예비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학문에 정진하고 성인의 도(道)를 탐구하는 것은 비록 그 극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사대부라면 응당 추구해야 할 삶의 태도이다. 게다가 이런 자세는 이전 시기의 강호시조에서는 수기(修己)의 측면에서 속세가 아닌 강호에서의 삶의 방식으로 긍정되었던 것들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자가 좇는 삶이 가어옹(假漁翁)이나 독선기신(獨善其身)을 추구하는 수양인이 아닌 ‘農圃’임에 주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막 환로에 나선 시점에 당시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충청도 유원에서의 생활을 선택”<sup>44</sup>해야 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안서우가 출사를 한 것은 1694년이고 유원으로 내려간 것은 그보다 한참 뒤인 1712년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장과 공맹을 추구하며 벼슬하기까지 30년 벼슬길에서 20년을 살아왔는데, 남인이라는 당파와 미력한 가문 등으로 인해 어느 순간 유리천장을 느꼈고, 그러한 가치들과 완전히 구분되는 농포의 삶을 기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내 몸 쓸 디 없”었기 때문에 제3의 선택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관료문인의 삶을 살았고 추종했던 작자가 ‘농포’의 삶을 선택함으로써 이어지는 작품에서는 전형적인

40 김용찬a, 앞의 논문, 2016.

41 정혜원, 앞의 논문, 1995; 윤정화, 앞의 논문, 2001.

42 김상진, 앞의 논문, 2008. 한편 이현자(『六歌系 연시조의 변이양상 연구』, 『시조학논총』 18, 한국시조학회, 2002)는 3단락을 서장, 제2장~제7장, 제8장~제12장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43 속세 = 부정적 속성을 가진 시어는 진하게, 강호 = 긍정적 속성을 가진 시어는 기울여서 표시했다. 또한 두 수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시어는 밑줄로 표시했다.

44 김용찬b, 앞의 논문, 51쪽.

‘강호자연’의 모습과 생활공간으로서의 농가 및 전원이 등장하는 ‘전가(田家)’의 모습이 동시에 등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靑山은 므스 일노 無知흔 날 긱트며  
綠水는 엇지하야 無心흔 날 긱트노  
無心코 無知타 웃지 마라 樂山樂水홀가 흐노라 <제2장>

紅塵에 絶交하고 白雲으로 爲友하야  
綠水 靑山에 시름 업시 늘거 가니  
이 둥의 無限 至樂을 험스홀가 두려워라 <제3장>

위 두 수는 <제3장> 첫 머리에 등장하는 ‘紅塵’을 중심으로 그와 대립되는 공간인 ‘靑山’·‘綠水’가 앞뒤로 배치되어 있다. 이를 통해 강호와 세속 사이의 이분법적 인식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강호자연을 표상하는 전형적인 시어인 청산·녹수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거리를 한층 좁혔다. 자연과 시적 자아의 동일성이 제시되어 강호 생활의 합리화가 한 단계 더 진전<sup>45</sup>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아울러 흥진과는 ‘絶交’하고 또 다른 자연물인 백운과는 친구 삼을 것이라는 직설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태도를 확실히 한다. 그 결과 산과 물을 즐기는[樂山樂水] 수준을 넘어 무한하고 지극한 즐거움[無限至<sup>46</sup>樂]을 누리는데 이른다.

耕田하야朝夕하고 釣水하야飯餐하며  
長腰의 荷鎌하고 深山의 採樵하니  
내生涯 이뿐이라 다투라서 다시 알리 <제4장>

내生涯 澹泊하니 기뉘라서 츄츄오리

入吾室者 淸風이오 對吾飲者 明月이라  
이 내 몸 閑暇하니 主人 될가 흐노라 <제5장>

<제2장>과 <제3장>이 전형적인 강호시조의 모습을 담았다면, 이어지는 두 수에서는 ‘전가시조’의 면모가 두드러진다. <제4장>은 <제1장>에서 언급한 ‘농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화자는 밭을 갈아 끼니를 해결하고 낚시로 반찬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허리에 낫을 차고 산에 들어가 나물을 캐기도 한다. 초중장은 ‘전원 및 농가 생활을 주요 배경이나 소재로 하여 그 속에서의 소회·흥취·체험을 주된 관심사로 노래<sup>47</sup>한 전형적인 전가시조의 모습이다. 종장에서는 이렇게 일생을 보낸다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만이라며 자족적인 인식을 드러낸다.<sup>48</sup>

<제5장>은 <제4장>의 종장을 초장에서 그대로 받아 시상을 전개한다. ‘담박(澹泊)’이라는 시어로 <제4장> 전체를 정리하고,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자연물인 ‘淸風’과 ‘明月’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화자의 생애가 담박하기에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으며, 같은 공간에서 마주하고 있는 것이 청풍과 명월이라는 언사에는 이미 자연과 완전히 동화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앞선 장들에서 보였던 이분법적 인식이 소거된 것으로도 읽힌다. 이 지점에서 ‘나’와 대척점에 있는 ‘뉘’의 존재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뉘’는 만족스러운 나의 생애를 알 수 없는 존재[<제4장>]이자, 나를 찾아올 수 없는 혹은 찾아오지 못할 존재[<제5장>]이다. 즉 현재 화자가 처한 공간이 강호라면 ‘뉘’는 바로 그 강호와 떨어진 속세의 존재가 된다. 강호에서의 삶을 누리는 중에 세속의 존재를 반복적으로 호명한다는 것은 의식

47 김흥규, 「16, 17세기 강호시조의 변모와 전가시조의 형성」, 『옥망과 형식의 시학』, 태학사, 1999, 195쪽.

48 <제4장>의 종장에 대해 “자신의 삶을 알아주지 않는 타인을 향해 섭섭함을 노래하여 타인을 향한 여전한 관심을 보”(김상진, 앞의 논문, 18면)이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초·종장의 내용은 물론 <제4장>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 <제5장>을 보더라도 과도한 해석이라 생각된다.

45 정혜원, 앞의 논문, 1995, 76쪽.

46 간략한 해제와 더불어 원전을 소개한 논의(김현영·정인숙, 위의 논문, 2020)에서는 ‘쫘’를 ‘之’로 보았는데, 원전을 검토하여 ‘쫘’가 맞음을 확인하였다.

의 한편에 강호와 속세 사이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 할 수 있다.

人間의 벗 잇단 말가 나눈 알기 슬희여라  
物外에 벗 엇단 말가 나눈 알기 즐거왜라  
슬커나 즐겁거나 내 분인가 호노라 <제6장>

嶺上의 白雲起호니 나눈 보미 즐거왜라  
江中 白鷗飛호니 나눈 보미 반가왜라  
즐기며 반가와 호거니 내 벗인가 호노라 <제7장>

<제6장>과 <제7장>은 시어의 반복뿐만 아니라, 초·중·종장의 구조마저 유사하다. <제6장>의 초·중장은 앞서 <제3장>에서 “紅塵에 絶交호고 白雲으로 爲友” 하겠다던 진술의 연장이다. ‘人間’은 ‘物外’와 대비되며 ‘사람’ 보다는 ‘인간 세상=속세’라는 공간적 의미에 가깝다. “人間의 벗 잇단 말가”와 “物外에 벗 엇단 말가”는 두 가지의 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인간 세상에 벗이 있지만 그것을 아는 것이 슬프고, 물외는 벗이 없지만 그곳에서 만날 벗을 알아갈 것이기에 즐겁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미 자신과 함께했던 ‘인간’인 친구들을 부정하고, 지금은 곁에 없지만 앞으로 사귄 강호에서의 친구들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난 것이다. 반대로 “말가”를 설의법으로 이해한다면, 인간 세상에는 벗이 없고 강호에는 벗이 있다는 뜻이 된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인간 세상에는 자신을 알아줄 진정한 벗이 없어 슬펐고, 오히려 강호에서 진정한 벗이 있음을 알기에 즐겁다고 풀 수 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화자가 ‘인간’이 아닌 ‘물외’를 긍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人世에서 삶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었다. 슬프든 즐겁든 모두 자신의 분수라는 종장에는, 어쩌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돌아갈 수도 있는 곳임을 어렴풋이나마 알았기에 완전히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어찌되었든 현재 화자가 발 딛고 있는 곳은 강호자연이다. <제7장>에 등장하는 白雲과 白鷗는 ‘物外의 벗’이 구체화된 것이다. <제3장>에서 친구 삼고자 했던[爲友]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다. 강호에서 사귄 친구들을 그저 즐겁고 반가운 존재들이다.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소거되고 이 순간만큼은 어떤 고민이나 갈등 없이 자연을 완연히 즐기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有情코 無心홀손 아마도 風塵朋友  
無心코 有情홀손 아마도 江湖鷗鷺  
이제야 昨非今是을 씨드룬가 호노라 <제8장>

陶彭澤棄官去홀 제와 疏太傅乞骸歸홀 제  
浩然行色을 뉘아니 부러호리  
알고도 不知止호니 나도 몰나 호노라 <제9장>

그런데 바로 다음 두 수에 이르면, 앞선 <제6장>과 <제7장>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 듯 보였던 강호와 속세의 대립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다. 특히 <제8장>은 ‘風塵朋友’와 ‘江湖鷗鷺’를 병치함으로써, 이미 벗어났다고 여겼던 속세와 이제 막 발 딛고 선 강호를 다시 한 자리로 불러낸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두 대상이 단순한 대립항으로만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풍진의 벗은 ‘有情’하면서도 ‘無心’하고, 강호의 구로는 ‘無心’하면서도 ‘有情’하다. 이는 속세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고, 강호의 삶 역시 마냥 충만한 것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화자의 복합적 정서를 드러낸다. 다시 말해 <제8장>은 강호의 선택이 이미 완결된 결단이 아니라, 여전히 속세에 대한 미련과 강호에 대한 자기 설득이 교차하는 국면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흔들림은 종장의 ‘昨非今是’에서 더욱 선명해진다. 이 표현은 도연명(陶淵明, 365?~427?)의 <귀거래사><sup>49</sup>

49 “스스로 마음을 육체의 노예로 삼았으니, 돌아간들 어찌 서글포하고 홀

에서 유래한 것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야 비로소 옳고 그름을 깨달았다’는 자각의 언표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 직후에 놓인 <제9장>은 이러한 자각이 곧바로 내적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드러낸다. <제9장>의 첫 구절에 등장하는 ‘陶彭澤’ 역시 도연명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두 수는 표면상 시어의 반복이 없더라도 전고의 연쇄를 통해 긴밀하게 연결된다. 곧 <제8장>의 ‘昨非今是’가 도연명의 귀거를 호출한다면, <제9장>은 그 도연명을 정면으로 호명함으로써 앞 수의 의미를 다시 반추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제9장>의 핵심은 도연명을 불러오는 데 있지 않고, 그를 끝내 따라가지 못하는 화자의 처지에 있다. 도연명의 ‘棄官去’와 소태부의 ‘乞骸歸’는 모두 벼슬을 버리고 물러나는 결단의 전범으로 제시되며, 화자는 그 ‘浩然行色’을 분명 부러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장에서 “알고도 不知止”라고 말하는 순간, 앞 수의 ‘昨非今是’는 확신의 선언이라기보다 스스로를 다잡기 위한 잠정적 언술로 재해석된다. 이미 무엇이 옳은지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끝내 밀고 나가지 못한다는 데에 이 두 수의 긴장이 있다. 결국 <제8장>과 <제9장>은 강호와 속세의 단순한 이분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강호를 선택한 이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속세 지향과 미련,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행위자의 내적 분열을 드러내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두 수는 <유원십이곡>의 핵심이 강호의 자족이나 속세에 대한 불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출처의 기로 앞에서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수렴되지 않는 주체의 긴장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

내 마음 定흔 後니 爲貧而仕 거긔말이

내 몸을 自專티 못흔니 爲親而屈이 올흔 말이

로 슬퍼하라? 이미 간 것은 따질 수 없음을 깨달았고, 앞으로 올 것은 쫓을 수 있음을 알았노라. 진실로 길을 잘못 들이 아직 멀지 않으니, 지금 이 옳고 어제가 잘못이었음을 알았노라(既自以心爲形役 奚而獨悲 悟已往之不諫 知來者之可追 實迷塗其未遠 今是而昨非) (도연명, 양희석·이수진 역, <歸去來兮辭>, 『도연명전집』 2, 지식올만드는지식, 2020, 713쪽).

이제나 養極專城흔니 도라갈가 ㅎ노라 <제10장>

人間의 風雨多흔니 므스 일 머믈노

物外에 烟霞足흔니 므스 일 아니 가리

이제는 가려 定흔니 逸興 계워 ㅎ노라 <제11장>

<제10장>에 이르면 화자는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이미 정하였다고 천명한다. 초장의 “내 마음 定흔 後니”라는 진술은 출처 사이에서 오래 지속되던 망설임이 이제 일정한 결론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종장의 “도라갈가 ㅎ노라”는 그 결단이 아직 완결된 실천으로 옮겨진 것은 아님을 드러낸다. 이미 선택은 이루어졌으며, 그 선택은 여전히 ‘가려는’ 상태, 곧 기로 위에 선 채로 발화되는 결심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10장>은 앞선 <제8장>·<제9장>에서 확인된 내적 긴장이 완전히 소거된 국면이라기보다, 갈등 끝에 비로소 하나의 방향을 정하면서도 마지막 주저를 남겨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초·종장에 등장하는 ‘爲貧而仕’와 ‘爲親而屈’은 이 수를 이해하는 핵심적 단서가 된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듯 ‘爲貧而仕’는 『맹자』 「만장」의 “仕非爲貧也, 而有時乎爲貧”에서 연원한 표현으로, 본래 벼슬이 궁핍만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생계를 위해 출사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런데 화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爲貧而仕’는 “거긔말” 이고 오히려 “내 몸을 自專티 못흔니 爲親而屈이 올흔 말” 이라고 한다. 이는 자신의 출사가 단순히 개인적 빈궁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가족과 부모를 위해 스스로를 굽힐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책무와 연결되어 있음을 토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제10장>은 속세를 향한 미련을 단순한 공명욕으로 환원하지 않고, 행위자가 짊어진 윤리적·가족적 책임의 차원에서 재정식화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출처의 갈등은 이상과 욕망의 충돌인 동시에, 개인의 자율성과 가족윤리 사이의 충돌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중장의 “養極專城호니” 또한 단순한 현달의 욕망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봉양의 책임을 다하고 관직에서의 성취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따라서 “도라갈가 호노라”는 강호로의 귀환을 향한 의지이면서도, 그 귀환이 현실적 책임의 이행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조건부의 결심이기도 하다. 이 지점에서 <제10장>은 강호와 속세의 이분법을 넘어, 속세에 머무는 이유 자체를 행위자의 내적 논리 속에서 정당화하는 수로 읽힌다. 즉 화자는 강호를 지향하면서도 속세에 남아야 할 이유를 적극적으로 의미화하고 있으며, 바로 그 점에서 안서우리는 행위자의 능동성이 드러난다.

이어서 <제11장>은 그러한 결심을 강호와 속세의 대비 속에서 재확인한다. 초장의 “人間의 風雨多호니”는 <제1장>에서 시작된 속세의 부정적 표상을 다시 환기한다. 여기서 ‘風雨’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 겪게 되는 번다함과 위태로움, 곧 관직 생활을 둘러싼 불안정한 현실을 집약한 시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중장의 “物外에 烟霞足호니”는 강호 공간의 충만함을 보여준다. ‘烟霞’는 강호자연의 아름다움과 흥취를 상징하는 말로, 앞서 청산·녹수·백운·백구로 구체화되었던 강호의 표상이 여기서 다시 다른 방식으로 집약된다. 이렇게 보면 <제11장>은 <제1장>에서 예비된 강호와 속세의 대립이 작품 후반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대립이, 선택 이전의 대립과는 같지 않다는 데 있다. 앞선 장들에서 강호와 속세의 대비가 주로 선택의 가능성을 둘러싼 인식의 문제였다면, <제10장>·<제11장>에 이르러 그것은 이미 강호를 마음속으로 선택한 뒤에야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 갈등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화자는 강호를 선택하고 그곳에서의 삶을 충분히 긍정하는 가운데서도, 속세를 향한 문제를 끝내 떨쳐내지 못한다. <제11장> 중장의 “이제는 가려 定호니”는

<제10장>의 “내 마음 定호 後니”를 반복·심화하는 진술이지만, 그만큼 그 결단이 여러 차례 되풀이되어야 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결심의 반복은 확신의 증거인 동시에, 확신이 쉽게 완결되지 못하는 상태의 표지이기 때문이다.

결국 <제10장>과 <제11장>은 <유원십이곡>의 후반부가 단순히 강호 정착의 낙관으로 수렴되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화자는 분명 강호를 향해 마음을 정하였고, 인간 세상의 풍우보다 물외의 연하를 택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선택은 단번에 이루어진 초월적 결단이 아니라, 빈곤과 봉양, 자율성과 책임, 공명과 은일 사이에서 스스로의 처지를 끊임없이 해석하고 정당화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10장>·<제11장>은 <유원십이곡> 전체의 핵심이 강호의 자족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 강호를 지향하면서도 속세적 책임과 미련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행위자의 지속적 긴장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준다.

먹거든 머지 마나 멀거든 먹지 마나

멀고 먹거든 말이나 호련마는

입조차 병어리 되니 말 못호여 호노라 <제12장>

마지막 <제12장>은 <유원십이곡> 전체에서 가장 이질적인 작품이다. 앞선 수들이 대체로 강호와 속세를 가리키는 시어를 반복·대응시키면서 내적 짜임을 형성해 나갔다면, 이 작품은 그러한 방식에서 벗어나 ‘먹-’, ‘멀-’, ‘말-’의 음성적 유사성과 점층적 전개를 중심으로 의미를 조직한다. 바로 이 형식적 이질성 때문에 해석 또한 크게 갈려 왔다. 이를 두고 김상진<sup>50</sup>은 “삼중 장애의 고통에 비유하며 결코 해소되지 않는 마음의 울분을 표출”하고 “강호의 즐거움이 아니라 결코 동화될 수 없는 강호생활의 불만

50 김상진, 앞의 논문, 29, 30쪽.

을 토로”한 것으로 이해하였고, 김용찬<sup>51</sup>은 자연에 들어선 화자가 이제 속세를 향해 귀먹고 눈멀고 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역설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보았으며, 양희철<sup>52</sup>은 더 나아가 <유원십이곡>과 무관한 별개의 작품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견해는 원전에 ‘右第十二章’이라는 부기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문제는 이 작품을 연작에서 배제할 것인가가 아니라, 왜 연작의 마지막이 이처럼 돌출적이고도 압축적인 형식으로 제시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데 있다.

<제12장>의 핵심은 강호생활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의 토로라기보다, 선택 이후에도 끝내 해소되지 않는 내적 긴장이 ‘소통 불가능’의 형상으로 압축되어 나타난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초장의 “먹거든 머지 마나 멀거든 먹지 마나”는 귀먹음과 눈멀을 병치하면서 차라리 하나만이라도 아니기를 바라는 심정을 드러내고, 중장의 “멀고 먹거든 말이나 흐련마는”은 설령 보고 듣는 능력을 잃더라도 말할 수만 있다면 건널 수 있으리라는 최소한의 기대를 남겨둔다. 그러나 중장에 이르러 “입조차 멍어리 되니”라고 함으로써 그 마지막 출구마저 막혀 버린다. 이 점층적 구조는 화자가 처한 곤경이 단순한 불편이나 일시적 우울의 차원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갈등을 더 이상 언어로 매개할 수 없게 된 상태임을 드러낸다. 만약 이 작품이 강호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만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 불만의 대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어야 할 것이고, 반대로 속세를 향한 단호한 절연의 선언이라면 탄식조의 종결보다는 결의의 어조가 더 두드러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작품은 어느 한편으로도 완전히 기울지 않은 채, 보고·듣고·말하는 모든 통로가 막혀 버린 극한의 답답함을 전면화한다. 이것은 곧 강호를 선택한 뒤에도 속세를 완전히 지워내지 못하고, 그렇다고 속세로 복귀하는 자기 자신을 선택 승인하지도 못하는 행위자의 막다른 내면을 드러

낸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제12장>은 앞선 <제8장>·<제9장>의 ‘昨非今是’와 ‘不知止’, 그리고 <제10장>·<제11장>의 반복되는 ‘定’의 언술을 거친 끝에 도달한 최종 국면이라 할 수 있다. 즉 <유원십이곡>의 후반부는 강호 정착의 환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호를 향한 결심이 거듭 확인되면서도 그것이 끝내 완결된 안정으로 굳어지지 못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제12장>은 바로 그 불안정성을 가장 압축적이고도 극단적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종결부이다. 앞선 장들에서 반복적으로 호출되었던 강호와 속세의 대립은 여기서 더 이상 구체적 시어의 병치로 나타나지 않고, 양자 사이에서 자신을 조율하던 화자의 언어 자체가 막혀 버리는 상태로 변환된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연작의 흐름에서 이탈한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그 흐름이 마지막에 이르러 도달한 극점으로 이해하는 편이 타당하다.

이상에서 보았듯 <유원십이곡>은 <제1장>에서 예비된 강호와 속세의 대립을 <제2장>부터 <제11장>까지 반복과 변주의 방식으로 지속시키고, 마지막 <제12장>에 이르러서는 그 갈등을 ‘말할 수 없음’의 상태로 집약한다. 따라서 이 작품은 강호에서의 자족이나 속세에 대한 울분 가운데 어느 하나로 환원될 수 없다. 오히려 여기에는 자신을 둘러싼 조건 속에서 강호와 속세, 자율성과 책임, 욕망과 윤리 사이를 끊임없이 저울질하며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구성해 가는 행위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다시 말해 <유원십이곡>의 독자성은 갈등의 해소에 있지 않고, 끝내 해소되지 않는 갈등 자체를 연작의 구조와 시적 언어 속에 끝까지 붙들어 놓았다는 데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유원십이곡>은 전형적인 강호시조와 구별되며, 안서우라는 행위자의 내면을 보다 인간적이고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으로 읽을 수 있다.

51 김용찬a, 앞의 논문, 160쪽.

52 양희철, 앞의 논문.

## 4. 결론

강호를 노래한 시조는 대개 강호와 속세 사이에서 갈등하다 강호를 선택하고, 강호에 기거한 이후에는 그곳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연시조의 경우 전반부에 배치된 작품에서는 갈등의 모습을 노래하고 차츰 그 갈등을 해소하며 후반부에서는 강호를 예찬하며 즐기는 모습을 노래한다. 어쩌면 이상적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강호에서의 삶의 완성은 안락함을 누리는 화자의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이에 반해 <유원십이곡>은 강호에서의 삶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고뇌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렇다고 화자가 강호에서의 삶에 불만족스러워한다는 것은 아니다. 한명의 주체적 인간으로서 양자택일의 문제에 있어 남은 선택지에 대한 미련이나 아쉬움과 같은 일종의 기회비용은 늘 발생하기 마련이다. 오히려 강호라는 이상적 공간에서의 삶을 누리는 여타의 강호시조의 화자는 한편으로는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이상적 공간에서의 삶이란 현실세계에서는 완전하게 이를 수 없는 삶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강호와 속세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갈등하는 <유원십이곡>의 화자는 훨씬 솔직하고 인간적으로 다가온다. 이는 다양한 욕망에 뒤엉켜 쉬이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던져준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안서우, 『兩棄齋散藁』·『兩棄齋續集』·『兩棄齋遺稿(下)』  
안정복, 『順菴集』(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서)  
이익, 『星湖全集』61(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서)

### 2. 단행본 및 논문

- 김상진, 「안서우의 <유원십이곡> 재조명: 강호인식과 연작성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19, 온지학회, 2008.  
김영민, 「철학의 역사와 의미의 역사: 성리학자와 연암박지원」, 『한국학논집』 4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1.  
김용찬, 「안서우의 생애와 시조 창작 배경」, 『한국시가문화연구』 37, 한국시가문화학회, 2016.  
\_\_\_\_\_, 「안서우 <유원십이곡>의 구조와 작품 세계」, 『한국시가연구』 41, 한국시가학회, 2016.  
김현영·정인숙, 「안서우의 『양기재산고』」, 『한국한문학연구』 78, 한국한문학회, 2020.  
김흥규, 「16, 17세기 강호시조의 변모와 전가시조의 형성」, 『욕망과 형식의 시학』, 태학사, 1999.  
\_\_\_\_\_, 『근대의 특권화를 넘어서』, 창비, 2013.  
도연명·양희석·이수진역, 『도연명전집』 2, 지식을만드는지식, 2020.  
박기완, 「양기재안서우문학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심재완, 『시조의 문헌적 연구』, 세종문화사, 1972.  
알랭 투렌, 조형역, 『탈산업사회의 사회이론: 행위자의 복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양희철, 「『유원십이곡』의 텍스트 연구」, 『청대학술논집』 28,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 2017.  
윤정화, 「18세기 향촌사대부의 '육가' 수용의 양상과 의미」, 『문창어문논집』 38, 문창어문학회, 2001.  
이현자, 「六歌系 연시조의 변이양상 연구」, 『시조학논총』 18, 한국시조학회, 2002.  
정규복, 「原典批評의 理論과 實際」, 『도남학보』 8, 도남학회, 1985.  
정형용, 「유원십이곡」, 『어문』 3, 우리어문학회, 1950.  
정혜원, 「18세기 강호시조 연구: 연시조 작품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4, 상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5.

---

**Abstract****The Return of Agency in An Seou's "Yuwon Sibigok"**

Shin, Seong-hwan | Chung-Ang University

This article reexamines An Seou's "Yuwon Sibigok" from the perspectives of textual criticism and an actor-centered approach. Based on the newly verified original text of Yanggijae Sango, it argues that "Yuwon Sibigok" consists of twelve sijo, not thirteen, and that the poem previously regarded as a prologue is an independent work. It also shows that the final poem, marked "Right, Chapter 12," forms an integral part of the sequence. Reconsidering An Seou's official career, the study argues that the work was composed during 1712 – 1715, when he stayed in Yuwon, Jecheon, and reflected on the tension between public office and retirement. Through an analysis of recurring diction and paired composition, it demonstrates that the sequence persistently stages this inner conflict. Rather than simply celebrating nature or expressing political resentment, "Yuwon Sibigok" reveals a literati subject who continues to waver, thereby preserving unresolved tension to the end.

**Keywords** An Seou, "Yuwon Sibigok", serial sijo, rivers and lakes and the secular world, agency, textual criticism

---